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 이종윤 원로목사

급변하는 사회에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영역과 책임은 날마다 달라지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 구조와 변화된 가치관의 도전을 받고 있는 현대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목회를 개발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알팍한 기술과 요령을 터득한 몇몇 목회자들은 교인수를 증가시키는 일에는 일단 효과를 보았다고 자처하고 있으나 시대와 사회를 변혁시킬 능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기에는 미흡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시공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고 양육하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는 자기 목회를 소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양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행하셨고 가르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해를 이루시려고 말씀계시와 행위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

모든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는 교회보다 우선한다. 예수님이 최고의 목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회는 교회의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목회는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어야 하고 그러나 교회 내 다른 은사가 있듯이 다른 목회도 있다. 하지만 모든 목회가 그리스도의 목회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부활하심으로 실현하신 것처럼 목회자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한다. 예수님의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께로 향하신 것이다. 목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회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 뜻을 만나고, 이 세상을 향하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구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빛을 비추려는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으므로 목회자는 거듭난 신자를 만들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목회를 교회에서 이루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듯이 하나님의 목회자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계속되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듯 목회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 없는 목회는 죽은 목회다.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고 그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이 있고 뜨겁게 기도로 아버지께 여주어 가면서 균형 잡힌 신앙 인격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2013년 7월 27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서울강남노회에서 서울교회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10명 증원 청원 건에 대한 허락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로써 담임목사 문제로 인하여 시작된 지난 4년 7개월간의 서울교회 분쟁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완화되어 빨리 장로선출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주일 낮 예배와 찬양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상황이지만,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새벽기도회도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요2부 예배만 수요1부 예배 영상이 녹화방송 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0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801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임목사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선 전재홍
선 교 사 권경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벨라루스),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함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벨라루스)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seoulchurch.or.kr/

“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

■ 출 19:1-6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출발하여 사막길을 지나온 지 약 50일 즈음에 시내 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광야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자신만만했고 민족적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만 사막 나그네 길을 경험하면서 점점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실 물도, 먹을 음식도, 실만한 그늘도 없어 모든 것이 열악했고 무엇보다 사막의 더위는 몹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험한 길을 걸어 가나인으로 가야 하는 지가 의심스러워졌고 유랑하는 난민과 같은 자기들의 모습에 민족적 자존감의 심각한 손상도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외면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때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출 19:9,16,18) 치지고 피곤하고 걱정이 많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어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당위성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1. 첫 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기시듯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4절)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셔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출 20:2)고 하였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36),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신 5:15)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확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확정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른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려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려움이 극심했고 세상의 비방과 반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이 진리를 위해 기꺼이 우리 인생을 걸고 살게 됩니다.

2. 왜 가나안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소중한 계획이 있음에 의미합니다.(5,6절)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동시에 그들을 통해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게 하시려는 선교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의 지정학적 위치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상적인 환경이 준비된 무릉도원 같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지역에 터를 잡게 하고 정착하게 하시는 것은 이곳이 세계인이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3대륙의 교차점입니다. 세계의 문명이 모이는 곳이며 사람과 문물이 흘러가는 길목으로 세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소식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그들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예민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의 침공을 심 없이 당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국토가 적군들에게 유린당했지만 그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고대의 바벨론 전쟁에서부터 최근의 걸프전까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모든 전쟁이 이 지역을 무대 삼았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정복자들로 인한 고난을 당했으나 그들의 신앙과 종교는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오늘날 세계 문명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 삼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벧전 2:9)

3.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주권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매우 부정적이었지만(민 13:31), 여호수아와 갈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어가 ‘우리’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가 도구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십니다. 그가 작정하시고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이루십니다. 우리 스스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불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단과 헌신만이 필요하고 능력의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걷는 예수의 제자들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마 7:20)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답게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노문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이계홍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3: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8(시 106)...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3(57)...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출 19: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359(401)...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33:12 인 도 자
 찬 송 620 다 합 께
 기 도 임광호 집사
 성 경 수 20: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도피성의 은혜” ... 설 교 자
 * 찬 송 269(211)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I부 오전 11시 ·인도: 서명철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 부 서희숙 권사
 성 경 수 21: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거룩한 직분의 축복”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 19:6)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I부	은 빛	박래경	안효주	홍혜란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1. 정기당회 / 8일(주일) 3부 예배 후 402호
2. 제직회 소집 - 안건 : 장로후보 선출 및 부목사 청빙 건 / 8일 주일 찬양예배 후(비대면 예배 수칙이 계속되면 다음 주일로 순연함)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새가족 등록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예배 전, 후로 새가족부에서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장 례
 1. 故 김영자 성도(12교구 홍성민 집사의 모친, 박은경 집사의 시모) / 7월28일(수) 별세, 30일(금)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방역지침 4단계에 따른 예배 안내 (7.12.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비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1부 예배 - 비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비대면 실시간 중계
- 따라서 수요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비대면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928명	440명	2,368명	443명	2,278명



자다가 깰 때

태평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함선이 침몰되고 있다면 어찌하면 좋을까. 배 안에 있는 선원이나 여객들이 그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면 더욱 비참한 일이 아닐까. 어차피 죽을 인생 차라리 모르고 지내다가 수장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것은 비극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와 같지 않은가.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사회적 갈등과 불안, 도덕과 윤리의 황폐함과 환경오염과 질서 파괴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에 빠져가고 있음을 모를 사람이 없을 터인데 원통한 것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가라앉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배를 수리하거나 침몰하는 배를 건져와야겠다는 의지와 힘이 함께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갖고 소욕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정직히 서 보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일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